

# 교서관 시대의 시작

독서의 풍속사 — 10

강명관 | 부산대 한문학과 교수

교서관은 세조 때 주자소와 합치면서 전교서로 지위가 하락했다. 성종 때 비로소 다시 교서관이라는 이름을 되찾으면서 국가 최대의 인쇄기관으로 자리잡게 된다. 제조, 별좌, 별제 등 양반 관직과 그 아래 서리, 장인을 뒤 인쇄를 담당했다. 목판을 보관하는 판당 규모만도 30간이나 되는 거대한 국가기관이었다. 교서관은 국가가 지식에 독점 공급해 지배 체제를 유지시키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기도 했다.

세조 6년 5월 22일 이조에서 줄일 수 있는 관원과 없앨 수 있는 관청을 정리해 올리는데, 거기에는 주자소를 교서관에 합치자는 건의도 있었다. 이 건의는 수용돼 교서관은 주자소를 흡수하게 된다. 《경국대전》에서 주자소란 명칭이 사라진 것은 이 때문이다.

이로부터 6년 뒤 세조 12년 교서관은 전교서(典校署)로 이름을 바꿨다. 관서의 명칭만 바뀐 것이 아니라, 소속 관원의 명칭도 바뀌었다. 하긴 여기서 그것을 구질스레 밝힐 필요는 없을 것이다. 어쨌든 전교서로 바뀐 것은 교서관의 지위가 하락한 것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조선조의 관청 위계에서 '서(署)'란 명칭이 붙은 것이 가장 낮은 것이니, 혜민서(惠民署)·액정서(掖庭署)·활인서(活人署)와 전교서는 동급이 된 것이다.

## 성종 때 전교서에서 교서관으로 개명해

성종 14년 전교서 박사(博士) 고언겸(高彦謙) 등이 전교서를 교서관으로 개명할 것과 위상을 올려줄 것을 상소한다. 상소의 요지를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다.

“교서관은 태조 때는 교서감(校書監)이었고, 정3품 판사가 2인, 종3품 감(監) 2인, 종4품 소감(少監) 2인과 그 아래 승(丞)·낭(郎)·저작(著作)·교감(校勘)·정자(正字)가 있었다. 따라서 교서감은 정3품 아문이다. 태종 때에 와서 교서감은 교서관으로 바뀌는데, 교리(校理) 1명을 더 두어 예문관·성균관과 더불어 삼관(三館)이라고 일컬었으니, 교서관의 직책이 결코 가볍지 않았다.

전교서(곧 교서관)는 수교(讐校)를 맡고 향축을 맡아서 벼슬의 임

무가 가볍지 아니하여 이들 작은 사(司)와 미세한 관(官)에 비할 것이 아니다. 또 전교서는 성균관·예문관·승문원과 더불어 병렬해서 사관(四館)이 되었고, 다같이 문신 출신인 곳인데, 다른 곳은 모두 3품 아문이지만 본서는 홀로 종5품 아문이 되었으니,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성종실록》 14년 10월 25일).

이 상소가 올라간 때는 약간의 배경이 있다. 이 때는 《경국대전》을 산정(刪定)할 때였으므로 교서관의 관원들이 교서관의 지위를 올리고자 운동을 했던 것이다.

전교서가 다시 교서관으로 바뀐 것은 성종 15년 1월 21일이다. 이전에 이미 교서관의 이름을 되찾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었다. 물론 한번의 상소로 허락된 것은 아니고, 성종 14년 12월 23일 재차 상소가 있었고, 정식으로 허락이 떨어진 것은 성종 15년 1월 21일이었다. 이 때에 와서 전교서는 다시 교서관이 됐다. 품계는 3품 아문(衙門)으로 하고, 아울러 겸판교(兼判校) 1원(員)과 교리(校理) 1원을 설치하며, 나머지는 예전대로 했다. 이것이 《경국대전》에 그대로 실리게 된다.

《경국대전》은 조선의 기본 법전인 만큼 교서관의 조직과 목적은 전 조선시기를 통해 별다른 개정 없이 그대로 유지됐다. 이제 《경국대전》을 통해 교서관의 설립목적과 그 조직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자. 교서관의 설립 목적과 조직을 이렇게 밝히고 있다.

“경적(經籍)의 인쇄·반포 및 향축(香祝)·인장전각(印章篆刻)의 임무를 맡는다. 모두 문관(文官)을 쓴다. 전문(篆文)에 정숙한 자 3인은 그 품계에 따라 겸임시킨다. 제조(提調)는 2원, 별좌(別坐)·별제(別提)는 합해서 4원을 둔다. 박사(博士) 이하는 또 의정부의 사록(司祿) 1원과 봉상시(奉常寺)의 직장(直長) 이하 1원으로 겸임하게 하고 차례차례 승진·전보시킨다. 1년에 양도목(兩都目)으로 2원은 그 직(職)에서 떠나야 한다.

정3품(判校 1인, 타관이 겸임한다), 종5품(校理 1원, 別坐), 정6품(別提), 종6품(별제), 정7품(박사 2원), 정8품(著作 2원), 정9품(正字 2원), 종9품(副正字 2원).”

## 판당 규모만 30간에 이르는 거대한 국가기관

복잡한 내용이지만, 중요한 것은 이미 언급한 적이 있다. 다만 위의 관직은 모두 양반 관직이다. 이들은 인쇄에 관련된 실무를 담당하지 않는다. 교서관에서 인쇄·출판의 실무를 담당하는 것은 잡직과 서리, 장인들이다. 그러나 교서관에는 잡직이 없고 서리만 16명이 배정돼 있다. 서리 16명은 각각 분장하는 분야가 따로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세조실록》 7년 7월 2일조에 열자 서원(列字書員), 장책 서원(粧冊書員)의 이름이 있는 것을 보면, 인쇄할 때 활자를 늘어놓은 일을 담당하거나, 제본을 담당하는 서리 등이 따로 있었던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 책의 제작을 맡는 장인(匠人)들이다. 《경국

대전》'경공장(京工匠)' 조에 따르면, 교서관에는 야장(冶匠) 6명, 균자장(均字匠) 40명, 인출장(印出匠) 20명, 각자장(刻字匠) 14명, 주장(鑄匠) 8명, 조각장(彫刻匠) 8명, 목장(木匠) 2명, 지장(紙匠) 4명 등 도합 102명의 장인이 소속돼 있었다. 이들이 활자의 제작과 인쇄·제본을 맡았다.

교서관은 세조 이후 금속활자와 지방에서 제작된 목판을 보유한 거대한 인쇄기관이 됐다. 이승소(李承召, 1422~1484)는 <전교서관당기(典校署板堂記)>란 교서관에 관한 귀중한 자료를 남기고 있는데, 이 글을 통해 당시 교서관의 규모를 짐작해보자.

“국초(國初)에 교서관을 훈도방(薰陶坊) 동원(洞源)의 서쪽에 창설하고, 그 땅에서 동쪽으로 대청(大廳) 3간(間)을 지어 사무를 처리하는 곳으로 삼았다. 그 서쪽에 판당(板堂) 5간을 짓고, 또 그 아래에 4간을 지었으며, 또 꺾어서 북쪽에 7간을 지어 사서오경과 제사자집(諸史子集)의 판각을 간직해두었다.

우리 세종조 때 명나라 문황제(文皇帝)가 신찬(新撰)한 사서오경대전 및 《성리대전》 등의 서적을 하사하자, 임금께서 지금 세상과 후대에 은혜를 널리 끼치고자 생각하시어, 이에 전라·경상 두 도(道)에 명하시어 목판을 새겨 교서관에 실어오게 하였다.

이에 새로운 각판과 예전의 각판이 구름처럼 쌓이게 되어, 책을 인쇄할 때마다 뒤지고 출납하는 즈음에 공간이 너무 협소하여 뽀뽀 쌓아놓은 탓에 뽀뽀하여 마멸되고 파손되는 것이 너무 많아 사람들이 병통으로 여겼다. 이에 북쪽 판당의 동쪽을 띄워 4간을 짓고, 또 그 동쪽에 4간을 지었으나, 그래도 여전히 부족하였다.”

교서관은 훈도방에 있었던 것이며, 사무를 처리하는 공간은 3간이었고, 나머지는 모두 판목을 저장하는 공간, 곧 판당(板堂)이었던 것이다. 이 판당은 원래 16간이었으나, 세종조 때 경상도와 전라도에서 제작했던 사서오경대전과 《성리대전》의 목판을 저장하기 위해 다시 8간을 더 지었던 것이다.

#### 지식의 독점 공급으로 지배체제 유지해

판당의 증축은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다. 갑오년(1474, 성종 5)에 다시 한명회, 양성지 등이 서적의 광포(廣布)를 위한 건의를 올리자, 성종은 전라도 나주·영광의 염세(鹽稅)를 떼어줘 서적 발행 비용에 보태게 했고, 이후 몇 년이 지나자 도저히 기존의 공간으로는 목판을 다 수용할 수가 없어서 그 동안에 저축된 비용으로 다시 1477년 서판당(西板堂)의 남쪽에 6간의 판당을 증축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목판을 저장하는 판당은 모두 30간이 됐다.

세조 6년 이후 교서관은 주자소에서 제작한 활자와 자체에서 제작한 활자를 모두 관장하고, 엄청난 양의 목판을 소유한 거대한 기관이

“세조 6년 이후 교서관은 주자소에서 제작한 활자와 자체에서 제작한 활자를 모두 관장하고, 엄청난 양의 목판을 소유한 거대한 기관이 됐다. 교서관은 최대의 출판 인쇄기관이었다. 이곳이 바로 조선조 출판의 센터였다. 조선조가 종언을 고할 때까지 교서관에 필적하는 다른 인쇄·출판 기관은 존재하지 않았다. 이곳에서 국가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서적들이 인쇄되고 발행됐다.”

됐다. 교서관은 최대의 출판 인쇄기관이었다. 이곳이 바로 조선조 출판의 센터였다. 조선조가 종언을 고할 때까지 교서관에 필적하는 다른 인쇄·출판 기관은 존재하지 않았다. 이곳에서 국가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서적들이 인쇄되고 발행됐다. 책은 지방에서도 인쇄되고 개인적 차원에서 더러 인쇄되지만, 어느 곳이든 교서관을 넘어설 기관은 없었다. 국가는 교서관이란 기관을 통해 지식을 독점적으로 공급했다. 책은 유일무이한 지식의 전달, 확산 방식이었고, 그것을 국가가 독점한다는 것은 국가 체제의 유지를 위한 수단을 독점하고 있는 것과 같았다. 국가가 발행하는 책으로 사대부들은 지배계급으로서의 교양과 이데올로기를 갖추 수 있었다. 이것은 조선 체제를 장구하게 유지하는 중요한 수단이었다. ■